



## 조선 후기 국왕의 文廟 행행의 추세와 성격

Trends and personality of the King's parade of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

저자 (Authors)	이왕무 Lee, Wang-moo
출처 (Source)	<a href="#">조선시대사학보</a> , (93), 2020.6, 39-65 (27 pages) <a href="#">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a> , (93), 2020.6, 39-65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조선시대사학회</a> 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119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1198</a>
APA Style	이왕무 (2020). 조선 후기 국왕의 文廟 행행의 추세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93), 39-6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6 09:1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조선 후기 국왕의 文廟 행행의 추세와 성격

이왕무\*

## 〈目次〉

- I. 머리말
- II. 문묘의 재건과 행행의 거행
- III. 문묘 행행의 지속과 推移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조선왕조 개국초부터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여 성현에게 제례를 거행하는 것은 유교적 도덕 정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 행위였다. 국왕이 문묘에 행차하는 것은 왕조의 이념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종묘와 사직에 버금가는 국가적 기념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의례적 행사였다. 국왕이 종묘와 사직행행에 버금가는 문묘 행행을 거행하였던 것에서 그 상징성이 부각되던 것을 조명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문묘를 전소시켜 그 국가적 기능은 물론 사회적 위상까지 사라지게 했다.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는 의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조 국가의 위기를 노출시키는 현상이었다. 이점은 왕실과 정부보다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문묘를 재건하는 것에 동참하고 재원을 모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왕조의 통치 이념이던 유교의 외형적 상징인 문묘의 재건은 양반 지배층의 존재를 가능하는 방향이었다.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여 공자를 알성하고 그를 추종하는 유생들을 관료로 선발하는 의례적 과정이 곧 양반 지배층의 안위를 국가적으로 보장한다는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국왕과 유생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지적 입장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왕의 행행 대상은 그 자체가 정치적 장소성을 지닌다. 문묘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직과 종묘, 능원묘 등의 행행 대상은 의례를 거행하는 일자에 국왕의 참여가 어려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우면 관료가 선행을 하였다. 종묘와 능원묘가 왕실의 성쇠와 함께하던 운명공동체였다면, 문묘는 왕실보다는 관료, 양반 지배층의 위상과 직접 연결되는 성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입장에서 문묘의 행행이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하여 정통성 구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오히려 嗣王에게는 자신의 종통인 종묘와 선대왕의 능침에 행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반면 문묘에 국왕들이 알성을 하고 왕세자가 입학하여 유학에 힘쓰는 모습은 왕조의 존재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국왕의 문묘 행행은 다른 행차와 달리 왕조국가의 반석인 이념적 토대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국왕의 문묘 행행이 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확대되지 않았던 양상은 유교적 통치 구조가 안정 체제로 안착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핵심어:** 행행, 문묘, 태학, 성묘, 학궁, 성균관, 대성전, 명륜당

## I. 머리말

조선 왕조 개국 초기의 관료들은 태조가 文廟와 學宮을 세운 것이 先聖을 존중하고 文教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자의 功은 인간이 생긴 이래로 더 성대한 이가 없으며 堯舜보다 더 어질다고 보았다.<sup>1)</sup> 왕조의 관료들이 국가 운영을 위해 도입한 주자학은 국가의 지배사상이 되었다. 주자학적 관념 체계에 입각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성균관이 그 토대가 되던 인재들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이었다. 성균관은 왕조 초기부터 교육을 통하여 지배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인재를 양성 선발하는 건국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성균관은 유교적 인륜을 밝히고[明人倫], 유능한 관료예비군을 양성[成人材] 하는 것이 건국 초기의 사명이었다. 성균관은 학업을 익히는 학문의 전당이기보다는 문과 준비 기관이었다.<sup>2)</sup>

성균관이 관료 양성을 위한 인재 개발 기관인 학궁이었다면, 유학의 성현을 모시는 문묘는 신성한 祭享 공간이었다. 문묘는 사직과 종묘에 버금가는 조선 왕조의 기념비적 지위를 지녔던 장소였다. 문묘는 首善의 장소라고 강조했다.<sup>3)</sup> 유학의 성현을 모시는 제례 공간만이 아니라 斯文을 계승시키는

1) 『동문선』 권121, 碑銘, 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

2)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연구」, 『역사학보』 35·36, 1967.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기부터 유학[신유학]을 국시로 하면서 공자의 제사와 후학의 강학을 위해 문묘를 건립하였다. 개국 초기부터 공자의 공덕과 기자의 東遷을 언급하며 廟學을 건립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sup>4)</sup> 국왕이 문묘의 위상을 높이고 존중하던 모습은 왕조 말기까지 성균관에 행행하여 講聖하고 유생들의 공부를 살피며 과거제를 설행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처럼 유학을 국시로 하는 국가에서는 국왕이 정치적 지위에 의해 도덕적 지위도 겸하는 입장이었다. 그 도덕적 지위의 근원은 '유학'이었으며 그것을 계승하고 숭모하던 공간이 문묘였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 보위에 오른 지 20일이 지난 뒤 예문춘추관 대학사 閔霽에게 명하여 문묘에 釋奠祭를 지내게 하였다.<sup>5)</sup> 3년 후에는 新都인 한양에 문묘를 건설하도록 했다.<sup>6)</sup> 10월에는 태조가 문묘의 役事 현장에 행행하여 관원과 군인들에게 犒饋하였다.<sup>7)</sup> 1398년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내린 즉위 교서에서도 문묘의 제례를 거행하는 것과 성균관의 학업 증진을 강조하였다.<sup>8)</sup>

조선 왕조가 개국 초기부터 유학을 국시로 삼으며 문묘를 그 중심으로 게시하면서 국왕들이 행차하여 제례를 올리던 장면은 그 자체가 권력의 집중과 중앙화를 우회적으로 제시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역대 왕조의 수명이 500여년 이상인 역사에서 그 장기 지속적 추세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야 왕조사의 특성을 조명할 수 있다. 대개 권력의 집중과 중앙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에 의해 언제나 장기간에 걸쳐 완성[age structuring]되는 경향이 있다. 각 시대와 사람들의 역할인 지위 및 계급 관계는 긴 세월에 걸

3) 『국역 태학지』 권7, 교화, 성균관, 1994.

4) 『태조실록』 권20, 태조 10년 9월 29일(계사).

5)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8일(정사).

6)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0월 25일(을묘).

7)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0월 7일(을유).

8)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12일(갑신).

쳐 조직화된 것이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이 조직의 확립은 양자에 의해 진행되었다.<sup>9)</sup>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권력의 쟁점화와 함께 확보되었다. 고대 중국의 주나라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관념 하에 이루어진 권력의 중앙집권화, 즉 전제 정권의 성립은 이를 잘 반증해준다. 조선 왕조의 개국 세력이 기자 조선의 유교적 통치와 공자의 성덕을 역사적으로 연계시켜 유학의 전통이 유구한 것이라고 정의한 가운데, 태조가 성현의 도를 이어간다면 문묘의 상징성을 세운 것도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있다.<sup>10)</sup>

이런 문묘의 역사적 배경에서 왜란과 호란을 거친 이후에 예조가 문묘의 재건을 건의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sup>11)</sup> 문묘의 재건 이후 국왕의 행차도 재현되었다. 국왕이 문묘에 행차하는 것도 행행이라고 하였다.<sup>12)</sup>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여 성현에게 제례를 거행하는 것은 왕조가 개국 초부터 지향하던 유교적 도덕 정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 행위였다. 국왕이 문묘에 행차하는 것은 왕조의 이념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종묘와 사직에 버금가는 국가적 기념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의례적 행사였다. 조선 후기에 국왕이 도성에서 종묘와 사직에 버금가는 문묘 행행을 거행하였던 것에서 그 상징성이 부각되던 것을 조명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묘의 정치적 상징성을 국왕의 행행을 통해서 살피고자 한다. 행행은 국왕의 행차이면서 공식적인 의례 행위였다. 문묘의 정치성이 의례적 면모로 해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문묘가 지니는 정치적 상징성을 의례적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sup>13)</sup> 다만 국왕이 문묘에 행차하는 행행 의례의 성격과 변화상을 주목한 연구는 미약하였다.

9) David I. Kertzer, 『Age structur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1989.

10)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9월 29일(계사).

11)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6일(기사).

12) 『승정원일기』 380책, 숙종 24년, 9월 11일(임오).

13)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도성내 행행의 추세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송웅섭, 「조선 성종의 문묘 의례 준행과 국왕으로서의 권위 창출」, 『역사와 담론』 85, 2018.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국왕의 문묘 행행이 보여주던 성격과 추세를 통해 그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왕조기 국왕의 행행이 지니던 의례적 기능의 고유성을 밝히는데 일조할 것이다.

## II. 문묘의 재건과 행행의 거행

조선 왕조는 창업과 함께 문묘의 의례를 정비하여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을 높였다.<sup>14)</sup> 태조는 문묘가 완공되기 전인 1397년(태조 6) 役所에 행차하여 관원과 인부들을 위무하였다. 국왕이 威儀를 갖추고 문묘에 행행한 것은 1406년(태종 6) 11월 13일이었다. 태종은 문묘에 행차하여 袞冕 차림에 平天冠을 쓰고 奠을 文宣王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성균관 관원과 학생들에게 供饋하였다. 당시 성균관은 개성부의 문묘를 말한다. 漢城의 문묘는 완공되기 전이었다.<sup>15)</sup> 1407년 3월 한성 문묘의 완성과 함께 7월에는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는 절차가 정비되었다. 당시 태종의 문묘 행행에 대해 河崙은 “친히 國學에 나아가는 것은 人君의 盛事입니다”라고 하면서 역대 국왕들이 문묘에 친림한 것을 설명하였다.<sup>16)</sup> 문묘 행행이 국학을 권장한다는 당위성을 역사적 유래로 주장한 것이다.

국왕의 문묘 행행을 비롯한 의례적 절차의 정비는 태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401년(태종 1) 태종이 佐命功臣과 敵血同盟을 하고 문묘에 參謁하였다.<sup>17)</sup> 태종대에는 문묘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국왕의 행행이 구축되는 시기였다. 1402년 원자의 학궁이 성균관의 동북쪽에 세워졌으며,<sup>18)</sup> 1406년에 성균관 外廣의 丈數를 『文獻通考』를 상고해서 12

14) 김해영, 「조선초기 문묘 향사제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15, 2000, 25~60쪽.

15)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1일(을해); 『국역 태학지』 상, 幸學, 성균관, 1994, 503쪽.

16) 『태종실록』 태종 7년, 7월 11일(임오).

17)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2월 12일(신축).

18)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24일(병자).

장으로 정했고,<sup>19)</sup> 1407년에는 문묘가 완공되었다.<sup>20)</sup> 1414년에는 국왕이 문묘에 정식으로 행행하게 되는 視學儀를 정비하였다.<sup>21)</sup> 태종은 시학의가 정비되자 문묘에 행행하여 先聖·先師에게 爵獻을 행하고, 明倫堂에서 500여명의 유생에게 時務를 策問하였다. ‘擧子 白日場’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sup>22)</sup>

태종대에 시작된 문묘 의례의 정비는 국왕이 성균관에 행행하여 성현을 謁聖하고 유생의 학업 視學을 계기로 국가적 의례로 정착되었다.<sup>23)</sup> 국왕이 성균관에 친림하여 알성례를 처음으로 시행한 시기는 태종대이다. 태종은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도 거행하였다. 태종대 시작된 문묘 의례의 정비는 세종대 오례의 편찬 과정을 거치면서 작헌례, 친시시학의, 왕세손입학의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세조대는 국왕의 알성례가 일반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종은 성균관에 尊經閣과 下馬碑를 설치하였으며 學田과 노비를 충원시켜 정치경제적 위상 및 역량을 높여 주었다. 성종이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거행한 것도 문묘의 위상을 높이는 시도였다.<sup>24)</sup> 성종은 춘당대에 나가서 集春門으로 성균관 유생들을 불러 경서를 講받고 과거 급제를 내려주기까지 하였다.<sup>25)</sup> 명나라의 사신들도 문묘에 행차하여 알성을 하면서 유학을 국시로 하던 왕조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일조했다.<sup>26)</sup> 국왕과 조정에서는 사서오경을 비롯한 수백권의 경서 및 전적을 성균관에 내려주어 성현을 모시는 聖堂만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인 學堂으로 자리잡게 하였다.<sup>27)</sup>

그런데 1592년 왜군의 침략은 왕조의 유교적 상징이던 문묘를 폐허로 만들었다. 문묘의 관노들이 사망으로 이산하고 인근의 泮村도 인적이 없는 황

19)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14일(갑진).

20)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3월 21일(을해).

21)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11일(임오).

22)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17일(무자).

23)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17일(무자).

24) 송응섭, 앞의 논문, 135~142쪽.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京都下.

26)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103~411쪽.

27) 서거정, 『四佳集』 권1, 기, 尊經閣 기문.

폐한 공간으로 전락하였다.<sup>28)</sup> 국가가 유생들의 학문 탐구를 위해 존경각에 보관하도록 한 서적도 모두 소실되었다. 『시전』의 경우에는 시중에도 책이 없어서 會講 때에도 유생들이 한 권씩 빌려 읽는 형편이었다.<sup>29)</sup> 吳希文이 왜군에 유린된 도성의 사연을 듣고 서술한 일기에서도 궁궐과 관공서의 대부분이 파괴된 황폐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문묘의 상태를 가늠하게 한다.<sup>30)</sup> 인조대 대제학을 지낸 李明漢도 왜란과 호란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전쟁으로 퇴락한 문묘를 잘 묘사하였다. 왜란을 거치면서 성균관의 제도가 대부분 파괴되어 1601년(선조 3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성전이 영건되었으며 1606년에 명륜당이 복구되었다고 하였다. 유생이 거처가 없어서 반촌의 민가에서 기숙하는 실정이었다.<sup>31)</sup> 따라서 왜란 이전에 성묘와 학궁의 위상에 걸맞게 거행되던 제사를 비롯한 각종 의례는 물론 유생의 거처도 파괴된 폐허 상태였다.

임진왜란이 본격적으로 장기전에 도입되던 1593년 10월에 예조에서는 문묘의 재건에 앞서 성현에 대한 제사를 우선 거행하고자 했다. 조정에서는 倫紀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壇과 位를 마련하여 紙榜을 놓고라도 先聖의 영혼을 위안하려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는 단과 위를 마련하고 지방으로 제사지내는 일은 구차하고 간략해서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조는 전례를 참고할 文籍이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位板을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폐허인 문묘의 자리에 草家로 두어 칸을 대성전 터에다 짓고 즉시 慰安祭를 거행한 다음 그대로 奉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고했다. 반면 선조는 宗社를 복구하기 이전에 초가라도 대성전을 짓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반대했다.<sup>32)</sup>

예조는 문묘가 소실된 상황에서 위판을 보관하고 제사를 지낼 공간으로

28) 『선조실록』 권200, 선조 39년 6월 18일(을묘).

29) 『선조실록』 권182, 선조 37년 12월 2일(정미).

30)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3, 국립진주박물관, 2018.

31) 李明漢, 『白洲集』 권16, 享官廳懸板記.

32)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18일(무술).

公廨나 민가 중에 타지 않은 정결한 곳이 있으면 형편대로 수리하여 봉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 대상으로 문묘 서쪽의 典祀廳이 정결하고 널찍하여 사용하자고 하였다.<sup>33)</sup> 예조에서는 문묘의 재건에 앞서 五聖十哲의 位版을 제작하고 奉安 처소도 수리한 뒤 慰安祭 거행을 진행하였다.<sup>34)</sup>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문묘에 관한 그림 및 등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전하는 문묘 관련 그림에는 당대의 건물 구조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없다. 다만 영조대의 그림과 일제 강점기에 전하는 사진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영조대의 성균관 전경이며, <그림 2>는 일제 강점기 경학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1> 조선 후기 성균관 전경<sup>35)</sup>

33)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20일(경자).

34)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13일(임술).

35) 서울역사박물관, 『太學稷帖』 서울역사00517.



〈그림 2〉 일제 강점기 성균관[경학원] 전경<sup>36)</sup>

위의 〈그림 1〉은 1747년(영조 23) 제작된 성균관의 평면도인 泮宮圖이다. 성균관은 泮水를 기준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다. 그림의 중앙에 三門, 대성전, 명륜당이 있고, 왼쪽에는 丱闡堂과 庖廚, 우측에는 享官廳, 正錄廳, 식당 등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관청 왼쪽에는 1743년 大射禮 이후에 설치한 六一閣이 있으며, 대성전 위에는 啓聖祠와 典祀廳이 있고, 그 외에 3개의 泮水橋, 下輦臺, 蕩平碑를 보관한 碑閣 등이 묘사되어 있다. 반면 〈그림 2〉에서 문묘 인근은 몇 채의 초가를 제외하면 빈 공간이다. 사진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문묘 정면의 神門을 지나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이어지는 인근이 주변과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에도 문묘의 기능이 유지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총독이 제례를 주관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림 2〉가 조선 후기 문묘의 모습을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36) 일본 외교사료관, 『聖堂復興記念儒道大會關係一件』 H62017.

국왕의 행행도 문묘의 재건을 위해 논의되었다. 예조가 전쟁의 엄혹한 와중에 문묘의 기능을 복구하면서 중흥을 위한 방안으로 선조의 행행을 기도했다.<sup>37)</sup> 예조는 문묘에 임시로 성현의 위패 봉안소를 마련한 후 국왕의 알성제를 추진하였다. 정유재란이 발생하기 1개월 전인 1597년(선조 30) 3월에 4월 8일 예정으로 문묘의 알성제를 시도하였다. 선조가 1593년 환도한 이후 4년만의 일이었다. 예조는 선조가 문묘에 행행하면서 焚香禮만을 거행하는 것은 너무 간소하다고 하여 酌獻禮도 마련하고자 했다. 예조는 국왕의 행행을 통해 훼손된 문묘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선조는 기운이 매우 불편하여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세자에게 代行하도록 하였다.<sup>38)</sup>

선조가 행행을 거행하지 않은 것은 도성내 주둔하던 명나라 군대의 작폐에 의한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당시 도성에 주둔하던 명나라 군인들이 문묘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명나라 군대가 문묘 내부에 난입하여 거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판을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명나라 군대를 지휘하던 제독 麻貴까지도 공자를 높일 줄 모르고 위판을 철거해 버리고 들어가서 거처할 정도였다.<sup>39)</sup> 유생들이 모은 문묘의 재건비를 명나라 군대의 군량 조달 비로 전용하기까지 했다.<sup>40)</sup> 도성에 주둔하던 명나라 장수들의 거처를 위한 공사가 많았으므로 성묘를 복구할 인력의 동원 자체가 불가능했다.<sup>41)</sup> 문묘가 복구되었더라도 국왕의 행행이 진행될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선조의 문묘 행행은 성균관의 재건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1601년(선조 34) 성균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묘의 재건을 건의하였다.

37)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 7월 20일(신묘).

38)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10일(경자).

39)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4일(정축).

40)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9일(무술).

41)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14일(정해).

성균관에서 아뢰기를, “현재 중국군이 모두 철수하고 山陵의 役事도 다 끝났으니, 이때에 모든 건축물을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따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聖殿을 먼저 세워 신령을 모시는 곳으로 삼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中外 諸生들이 米幣를 수합한 것의 수량이 적지 않은데, 오랫동안 쌓아두고 즉시 조처하지 않아 도를 존모하는 諸生의 정성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만일 本館의 관원에게 그 일을 전담하게 하여 모인 재물로 재목을 사고 품삯을 지급하여 시간을 두고 점차 건조하게 한다면 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예조에서 하여금 헤아려 가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sup>42)</sup>

위의 성균관 보고는 문묘의 재건이 왕조 정부가 아닌 전국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는 요지이다. 왜란으로 소실된 궁궐의 영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606년(선조 39) 6월에 宮闕營造都監의 인원을 확충하면서부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sup>43)</sup> 문묘 재건의 논의가 도성내 국가 기관 중에 가장 이른 營建 여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왕조 국가의 근본이라고 할 도성의 궁궐은 물론 종묘 및 사직의 重建보다 이른바 성현의 문묘 복구가 시급하다는 것이 儒者들의 무의식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묘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거행하되, 성균관이 중심이 되어 유생들의 재원으로 진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사이다. 전쟁의 와중에도 성균관이 제도의 유생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렴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기도이다. 왕조 국가의 지원 없이 유생들의 자력으로 유교의 성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의 유생들이 조직적으로 문묘의 재건을 위해 물력을 모으는 일은 왜란 중기부터 진행되었다. 1596년 성균관의 학생들이 문묘를 중수하려고 외방의 유생에게서 쌀과 배 등의 재원을 거두었다. 정부의 관원들을 그 재원을

42)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43) 『선조실록』 권200, 선조 39년 6월 17일(갑인).

사전 논의 없이 公家の 물건처럼 가져다 군량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sup>44)</sup> 이에 성균관의 유생들이 斯文의 위기를 구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그 첫 단계로 문묘를 재건하고자 전국적으로 米幣를 걷었는데, 관청에서 명나라 군대의 군량으로 전용한 것은 근본을 망각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왜란의 와중에 군대의 군량이 시급한 급무이기는 하지만, 국가를 교화하는 근본이 문묘라는 신성성을 망각한 불행이라고 증지할 것을 요청하였다.<sup>45)</sup> 무엇보다 유생들에게 문묘의 존재는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동일체였기 때문이다. 문무과 시험의 장원이 각각 榜 안의 합격자들을 거느리고 문묘에 가서 배알하는 것이 조선 전기부터 200여년 동안 지켜온 규례였다.<sup>46)</sup> 국왕이 성균관에서 시험을 거행하는 것은 태조대부터 시행되어 유래가 깊었다.<sup>47)</sup>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유학의 대선배인 공자에게 알현하고 斯文의 후예이며 왕조 국가의 엘리트라는 것을 공인받게 되는 장소가 문묘였다.

문묘의 건물들이 본격적으로 영건되는 시기는 1602년(선조 35)이었다.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는 대성전 공사가 7월경에 완공되었다. 예조에서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는 儀註를 정비하였으며 祭官·제문·제물은 물론 대성전 내부에 두는 설비 등도 배설하도록 하였다.<sup>48)</sup> 물론 새롭게 영건된 문묘가 왜란 이전의 형태를 복원시킨 것은 아니었다. 東廡·西廡·神門은 물력의 부족으로 동시에 중건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았던 것을 사용하고 남긴 米布, 구워 놓은 기와 등을 사용해서 중건하고자 했으나, 지방의 목재를 벌목하여 운반하는 것이 해빙 이후에 가능했으므로 대성전 영역이 완공되는 것이 1년 이상 더 연장되었다.<sup>49)</sup> 실제로 해빙 이후에 유생들이 모

44) 『선조실록』 권75, 선조 29년 5월 20일(병술).

45)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8일(정유).

46)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44, 광해군 11년 9월 19일(무술).

47)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24일(무술).

48)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25일(을묘).

49)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21일(경진).

은 재원 중에 남은 것과 각지에서 운송한 재목을 활용하여 장인들이 동원되어 동무 등을 복원하였다.<sup>50)</sup>

1602년(선조 35) 9월에 문묘 알성례를 앞두고 예조에서는 국왕의 행차에 왕세자의 동행 여부를 타진하였다. 예조는 『五禮儀』에 문묘 작헌례 이후 視學儀만 있고 儒生製述과 武科試射는 예문 중에 없다고 하였다. 시학의는 왕세자가 당연히 入參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문무과 전시의에는 왕세자 입참이 없었다. 다만 문묘의 중건 이후 처음 거행되는 과거였으므로 중의의 많은 선비들이 주목할 것을 감안하여 왕세자의 입참을 건의하였다. 선조는 전례가 없으니 문과는 어려우나 무과 때에는 입시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sup>51)</sup>

당시 국왕의 대성전 알성례는 문묘의 중건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례였다. 선조는 왜란이 정리되던 1602년(선조 35) 9월 9일에 문묘에서 알성례를 거행하였다. 왜란 이전인 1588년(선조 21)에 알성한 이후 15년만의 일이었다.<sup>52)</sup> 문묘의 의례가 전쟁으로 10여년간 정지되었으므로 제례를 집사한 통례원과 상의원 관원들의 실수가 이어졌다. 배위에 따라 奠爵을 맞추어 올리지 않거나 왕세자를 비롯한 백관들의 동선이 착오되는 경우가 많았다.<sup>53)</sup> 문묘가 재건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재원을 동원한 것이 아닌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미폐를 이용하여 임시로 세운 전각이었으므로 빈약하고 소규모였다. 의례서의 규범대로 행사를 거행할 규모가 아니었다. 더욱이 유생들이 문묘를 중건한 주요 목적이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할 聖殿의 영건이었으며 기숙사라고 할 수 있는 東廡와 西廡의 복구에는 관심이 없었다.<sup>54)</sup>

문묘가 임시로 복구된 이후 국왕 행차를 거치고 학궁 의례를 거행한 뒤, 1606년에는 명나라의 詔使가 방문하여 알성례를 마칠 정도로 전각과 영역의

50) 『선조실록』 권162, 선조 36년 5월 25일(경진).

51)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8일(정묘).

52)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5월 29일(신해).

53)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9일(무진).

54) 『선조실록』 권162, 선조 36년 5월 25일(경진).

재건이 완결되었다. 조사가 왕립하기 이전에 명륜당 등의 건물을 세우고 단청을 마쳤으며 유생의 서재도 건립하여 외국 사신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왜란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평가와 논상을 받았다.<sup>55)</sup> 문묘의 의식 절차도 왜란 중에 명나라에서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던 經理 楊鎬 등이 중국인들이 지적인 典式에 따라 藩國의 지위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兩廡에 봉안하는 先師의 位號와 從祀의 黜陟 및 啓聖廟에 관계되는 것과 節目도 중국의 예제를 상고해서 조처하였다.<sup>56)</sup> 명륜당의 편액도 중국 사신의 글씨를 받아 模刻해서 완성하였다.<sup>57)</sup> 물론 외관상의 복구는 진행되었으나, 문묘가 지니던 성역의 의미는 훼손된 상태였다. 관청이 관노의 추문을 하면서 泮村에 사령들을 보내 문묘의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킬 정도였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묘에 국왕의 행행이 재차 거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성례의 거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알성례는 素王인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는 의례이다. 유학의 스승을 높이고 도를 소중히 한다는 의미이다.<sup>59)</sup> 국왕의 문묘 행행이 왕조 국가의 사표인 공자와 국가 운영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을 수호하고 대표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차였다. 동시에 국왕의 알성례는 으레 문묘에서 試士를 하는 의례의 한 과정이었으므로 과거제의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sup>60)</sup>

왜란 이후 국왕이 재건된 문묘에 행행을 거행하던 모습은 국가 기관의 재건이나 왕실 의례의 복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왕조 국가의 권위 및 그 근간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왕조 정부가 국초부터 지향한다고 했던 예악이 두루 닦여져 교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이 안정되었음을 公表하는 모습이기도 하였다.

55)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22일(경신).

56) 『선조실록』 권177, 선조 37년 8월 14일(임진).

57) 『선조실록』 권198, 선조 39년 4월 9일(정미).

58) 『선조실록』 권200, 선조 39년 6월 15일(임자).

59) 『성종실록』 권47, 성종 5년, 9월 27일(기묘).

60) 『숙종실록』 권61, 숙종 44년, 1월 12일(신유).

### Ⅲ. 문묘 행행의 지속과 推移

실록에서 국왕의 문묘 행행 사례를 보면 1393년 6월 24일에 태조가 개성의 성균관에 행행한 것이 왕조 최초의 문묘 행차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태종이 1401년 2월에 개성의 성균관에 행행한 것이다. 왕조 초기의 성균관 행차는 개성에 소재한 것이므로 한성의 문묘 행행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선 왕조에서 국왕이 정식으로 문묘에 행행한 것은 태종이었다. 문묘가 완공되었던 1407년 3월 21일의 이전인 1406년 11월 13일이었다. 태종은 성균관에 행차하여 문선왕에게 親尊하였다.<sup>61)</sup> 태종은 1414년 7월에 국왕의 문묘 행행 목적에 걸 맞는 의례를 구축하였다. 태종이 문묘에 행행하여 거행하고자 한 것은 視學儀였다. 인군이 國學에서 유생들이 講經하는 것을 보고 試取하겠다는 의미였다,<sup>62)</sup> 정조대에도 문묘는 인군 교화의 관서라고 불릴 정도였다.<sup>63)</sup> 태종이 문묘에서 시행한 시학의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던 국왕의 의례였다. 즉 국왕의 문묘 행행은 국초에 구축하였던 알성례와 시학의를 거행하기 위한 행차였다.

문묘의 알성례와 시학의는 왕조의 통치 이념과 군주의 권위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알성의 대상이 문선왕 즉 공자라는 것은 崇儒라는 국시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학의에서 국왕이 관료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왕조 국가 지배층의 최고 권력자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알성례와 시학의가 문묘라는 유학의 성지와 연결시켜 신성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술이라고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태종 이후의 국왕들이 알성과 시학을 왕대별로 일정한 시기에 거행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문묘의 행행 시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교차점이라고 한다면 봄과 가을로서, 이 시기는 국왕이 종묘와 능원묘에 행차

6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1월 13일(기사).

62)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11일(임오).

63) 『승정원일기』 1461책, 정조 4년, 3월 27일(병오).

하는 기간과 동일하다. 따라서 조선 전기 국왕의 문묘 행행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왕별로 재위기간 거행 수치도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세종은 禮樂을 표방하며 도덕 정치를 구현한 성군<sup>64)</sup>으로 말해지지만 재위 33년간 2회의 문묘 행행을 거행하였다.<sup>65)</sup> 이후 세조는 재위 14년간 6회, 성종은 26년간 9회, 중종은 39년간 14회, 명종은 23년간 6회, 선조는 42년간 5회 등의 문묘 행행을 거행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조선 전기 국왕들의 재위 기간 문묘 행행의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 전기 국왕의 문묘 행행과 추세<sup>66)</sup>

국왕 재위년	태조 7	정종 2	태종 18	세종 33	문종 3	단종 4	세조 14	예종 2	성종 26	연산 13	중종 39	인종 1	명종 23	선조 42	계
행행	1	0	3	2	0	1	6	0	9	1	14	0	6	5	48회

위의 <표 1>에서 태조부터 선조대까지 문묘 행행은 48회가 진행되었다. 정종, 문종, 예종, 인종은 재위 동안 1회의 행행도 거행하지 않았다. 재위년이 3년 이내의 국왕이 문묘 행행을 거행하지 않았다. 태조부터 단종까지 재위년에 비해 문묘 행행이 적으며 세조, 성종, 중종대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연산군과 선조는 위기의 시기였으므로 예외라고 생각된다. 전기 국왕들의 문묘 행행은 매년 거행되지 않았으며 특정한 일자에 집중되지 않았다. 다만 연산과 중종대에 문묘에서 대사례를 거행한 것이 주목되며, 중종과 명종대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선조대 왜란을 당하면서 급격하게 수치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02년(선조 35) 7월에 문묘가 재건되고 9월에 알성례를 거행한 후 조선 후기 국왕의 문묘 행행이 본격적으로 거행되었다. 1610년(광해군 2) 광해군

64) 이성무, 『개정증보』조선의 사회와 사상』, 일조각, 2004, 88~94쪽.

65) 『세종실록』 권44, 세종 11년, 5월 26일(신미); 권63, 세종 16년, 3월 8일(을유).

66) 『조선왕조실록』, 『태학지』를 정리하였다.

은 왕세자가 문묘에 알성을 하고 작헌례를 거행하도록 했다.<sup>67)</sup> 광해군도 4개월 후 세자를 대동하고 문묘에 행행하여 제례를 올리고 명륜당에서 문과, 下輦臺에서 무과를 시행하였다.<sup>68)</sup> 1615년과 1619년에도 알성한 다음 문무과 선발을 하였다.<sup>69)</sup> 문묘 행행이 알성례와 시학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행차였다. 특히 조선시대 국왕의 행차에서만 용인되던 觀光民人의 접근을 허락하던 모습도 나타났다, 광해군은 문묘 행행시에 행차의 가마 인근에서 구경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sup>70)</sup>

인조의 문묘 행행은 1623년(인조 1) 5월에 시작하여, 1624년 10월, 1629년, 1632년, 1633년, 1635년, 1636년, 그리고 3년 후인 1639년(인조 17) 3월에 거행하여 27년의 재위 기간 동안 8회를 하였다. 인조도 선조대와 동일하게 외적의 침략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문묘 행행을 거행하지 못했다. 1639년은 병자호란을 겪은 지 3년 후로 난의 정리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인조는 문묘에 행행하여 알성하고 酌獻禮를 행한 다음, 명륜당에서 문과를 거행했고, 하연대에서 무과를 시행하고 그날로 放榜하였다<sup>71)</sup> 이후 서거하는 1649년(인조 27)까지 문묘 행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호란이 발생하기 이전인 인조의 재위 전반기에는 문묘 행행을 지속하였으며 시학의를 거행하면서 알성시를 보겠다는 정치적 언사를 구사하여 성균관에 유생들이 捲堂을 거두고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였다.<sup>72)</sup>

인조대 호란을 거치면서 거행했던 문묘 행행은 철종대까지 지속되었다. 양치의 호란시에는 문묘의 유생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성현의 위판은 피신시켜 안전했고 건물도 크게 훼손되지 않아<sup>73)</sup> 문묘의 행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조선 후기 국왕의 문묘 행행을 정리한 것이다.

67)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9, 광해군 2년, 5월 28일(임신).

68)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3, 광해군 2년, 9월 9일(신해).

6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95, 광해군 7년, 9월 21일(갑오); 권145, 광해군 11년, 10월 16일(을축).

70)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06, 광해군 8년, 8월 7일(을사).

71)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 3월 10일(정묘).

72)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11월 4일(계유).

73) 『국역 대학지』 권10, 사실.

〈표 2〉 조선 후기 국왕의 문묘 행행 추세<sup>74)</sup>

국왕 재위년	인조 27	효종 11	현종 16	숙종 47	경종 5	영조 53	정조 25	순조 35	헌종 16	철종 15	계
행행	9	3	1	12	1	20	7	4	1	3	61

위의 〈표 2〉에서 조선 후기 왕대별 문묘 행행 추세는 일정한 형태의 증가나 감소가 보이지 않는다. 인조부터 철종까지 240여 년간의 문묘 행행 수치는 61회로 연간 1회도 거행되지 않던 추세를 보인다. 국왕별 문묘 행행은 인조, 숙종, 영조, 정조를 제외하고 재위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10%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에서 정조까지 문묘 행행의 수치가 재위년과 비교할 때 20~40%의 추세를 나타낸다. 다만 〈표 2〉의 수치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연대기 사료 사이에 기록 작성 주체에 따라 행행 일자 및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예컨대 인조가 병자호란 직전인 1636년

74)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태학지』, 『御營廳舉動謄錄』을 비교 정리하였다. 국왕별 문묘 행행 일자는 다음과 같다. 행행 일자가 없는 것은 『태학지』의 기록이며 연대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 광해군 : 1610년(광해군 2) 9월 9일, 1615년 9월 21일, 1617년 9월 24일, 1619년 10월 16일
- 인조 : 1623년(인조 1) 5월 2일, 1624년 10월 19일, 1628년 9월 25일, 1629년, 1632년 3월 18일, 1633년, 1635년 9월 4일, 1636년, 1639년 3월 10일.
- 효종 : 1651년(효종 2) 9월 18일, 1653년 8월 17, 1657년 9월 17일
- 현종 : 1661년(현종 2) 9월 24일
- 숙종 : 1677년(숙종 3) 3월 26일, 1681년 9월 10일, 1686년 4월 3일, 1687년 9월 21일, 1691년 8월 10일, 1693년 8월 11일, 1694년 8월 4일, 1698년 9월 11일, 1700년, 1702년 3월 25일, 1705년 4월 28일, 1709년 8월 11일
- 경종 : 1722년(경종 2) 9월 15일
- 영조 : 1726년(영조 2) 11월 24일, 1732년 3월 18일, 1733년 2월 12일, 1736년 10월 2일, 1742년 4월 13일, 1746년 윤3월 4일, 1749년 3월 16일, 1750년 9월 10일, 1756년 2월 26일, 1759년 7월 25일, 1762년 3월 20일, 1765년 3월 28일, 1767년 9월 18일, 1739년, 1740년, 1743년, 1753년, 1757년, 1760년, 1764년
- 정조 : 1778년(정조 2) 7월 27일, 1782년 3월 10일, 1785년 3월 11일, 1789년 2월 26일, 1790년 2월 24일, 1794년 2월 26일, 1799년 9월 30일
- 순조 : 1803년(순조 3) 4월 10일, 1807년 9월 10일, 1811년 7월 25일, 1825년 4월 21일
- 헌종 : 1838년(헌종 4) 4월 13일
- 철종 : 1851년(철종 2) 10월 19일, 1860년 3월 14일, 1862년 3월 15일.

에 행행한 기록은 『태학지』에만 나타난다. 실록과 일기 등에는 의례적 행차의 소종래를 기록하는 것이 중심인 반면, 문묘 기록에서는 국왕이 반촌에 행차했다가 성균관에 들러 알성한 것까지 기재했기 때문이다.<sup>75)</sup>

위의 <표 2>에서 왕대별로 재위 기간 중 3회 미만의 소략한 문묘 행행을 거행한 것이 전체 10명 중에서 4명으로 40% 정도이다. 국왕 중에서 재위 기간이 짧았던 경종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효종 재위 11년의 3회, 현종 재위 16년의 1회, 헌종 재위 16년의 1회, 철종 재위 15년의 3회는 재위 기간에 비해 문묘 행행의 수치가 소략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헌종의 경우에 단 1회의 행차에서도 문묘 행행의 성격이자 보여지던 의례인 試取를 거행하지 않고 작헌례만 하였다.<sup>76)</sup> 물론 현종도 재위 15년 중 1회의 문묘 행행을 하여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가 재위기간 온양에 장기간 행차하여 치료를 할 정도로 신체가 허약했던 것과, <표 2>의 문묘 행행 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정조 이후 세도정치기에 접어들면서 행행 횟수와 시취가 다소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숙종대 이후 정조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던 행행 수치와 시취가 순조부터 감소하고 있다. 순조는 35년간 4회의 문묘 행행을 거행했다. 집권 초기는 4년마다 거행했으나, 1811년(순조 11) 7월 이후는 1825년 4월에야 거행하여 15년간의 간극을 보인다. 1811년 12월 홍경래의 난 이후부터 거행하지 않았다고 파악된다.

위의 <표 2>에서 국왕들의 문묘 행행이 시작되는 것은 즉위한 후 1~3년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인조, 숙종, 순조, 헌종을 제외하면 모두 재위 3년에 문묘 행행을 거행하였다. 국왕들의 행행은 보위에 오른 년도에 바로 거행하지는 않았으며 매년 반복되지도 않았다. 즉위년에 문묘에 행행한 것은 인조가 유일하다. 헌종은 즉위 5년 만에 문묘 행행을 거행하여 보위에 오른 뒤 제일 늦게 행차하였고 동시에 현종, 경종과 함께 재위기간 단 1회만 문묘에 행행하였다. 영조는 재위 3년인 1726년 처음 문묘에 행행한 시기가 11월 24

75) 『국역 태학지』 권6, 교화.

76) 『승정원일기』 2353책, 헌종 4년, 4월 13일(갑인).

일로서 국왕 중에서 유일하게 겨울 행행 사례를 보인다.

이와 같이 인조 이후 국왕들의 문묘 행행은 일정한 기간이나 주기를 보이며 거행되지 않았다. 다만 인조 이후 국왕들의 문묘 행행이 대부분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문묘가 2월과 8월에 釋奠祭를 지내던 정례의 영향이다. 행행이 거행된 시기를 보면, 문묘의 春秋祭禮의 시기인 2월부터 4월 사이가 22회이며 7월부터 10월이 18회로서 전체 61회 중에서 47회로서 90%에 달하는 비율이다. 문묘 행행이 춘추 석존제 시기에 부합하는 봄과 가을에 걸쳐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묘의 제사인 알성례와 함께 문무과 시험인 시학의를 거행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조선 후기 국왕들의 문묘 행행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 전기의 국왕과 마찬가지로 문묘에서 작헌례와 함께 인재 등용을 위한 과거를 시행한 것이다. 춘추의 문묘 행행이 제례만이 아니라 과거의 시행도 함께 거행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무과 시험 장소와 과목의 특성상 문묘에서는 문과를 시험하였으며 하연대 혹은 창경궁의 춘당대에서 무과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국왕들은 창경궁 동문인 集春門을 통해 문묘에 이르러 작헌례를 거행한 뒤 명륜당에서 시취하고, 다시 집춘문을 거쳐 춘당대로 와서 무과 시험을 진행했다.<sup>77)</sup> 조선 후기에 국왕이 문묘에 행행한다는 것은 문무과 시험이 거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시험에 참여하는 선비들이 도성과 지방의 각처에서 모였으므로<sup>78)</sup> 날씨가 그날의 행사를 좌우할 수 있었다. 과거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봄과 가을에 문묘 행행을 집중적으로 거행해야 제례와 과거를 무사히 거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석된다.

한편 문묘 행행의 시위 체제도 국왕의 도성내 행행인 종묘와 사직에 행차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사직과 종묘에 행행하던 모습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로이다. 경회궁에서 출발하는 행렬의 경우에는 사직 및 종

77) 『조선왕조실록』 권4, 현종 2년, 9월 24일(경자); 권32, 숙종 24년, 9월 11일(임오); 권55, 영조 18년, 4월 13일(임인); 권6, 정조 2년, 7월 27일(갑인); 권5, 순조 3년, 4월 10일(갑술).

78)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4월 3일(정해).

묘 행행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창덕궁에서 문묘에 행행하는 도로는 일반적인 행차와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창덕궁에서 출발할 경우 창경궁의 동문인 집춘문을 통해 문묘에 행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임난 이후 문묘의 행행을 거행하던 시기부터 집춘문을 통한 동선이 자주 활용되었다.<sup>79)</sup> 돈화문도 언급이 되었으나 집춘문을 통한 출환궁이 선택되었다.<sup>80)</sup> 집춘문 인근에는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입직 군병들이 직속하는 진영이 있어서 시위 체제를 운용하는 것도 용이하였다.<sup>81)</sup> 특히 행차를 위한 도로 修治 등의 민폐를 야기 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또한 문묘에서 문과를 시행한 후 환궁하여 춘당대에서 무과를 시행하는 경우 집춘문을 경유하는 것이 의례 거행에 용이하였다.<sup>82)</sup>

시위의 경우, 문묘 행행에는 도성내 행행과 동일한 편제의 시위 군병들이 동원되었다.<sup>83)</sup> 도성내의 행행이므로 조선 후기 도성내의 주요 군대인 삼군영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담당하였다.<sup>84)</sup> 국왕의 행차가 집춘문을 나가면 시위 군병이 임시 막차 외부를 호위했고 일부는 문묘의 비각 전면에 집결했다가 국왕의 신변에 作門 체제를 이루었다. 다만 창경궁의 흥화문을 통한 행차인 경우에는 馬兵 廂軍이 동원되어 挾輦하였다.<sup>85)</sup> 또한 원거리 행차인 능행과 원행처럼 高峰 斥候와 通路 伏兵을 두어 낮에는 깃발, 일몰 후에는 횃불로 안전의 여부를 전달하는 등의 시위 체제를 이루었다.<sup>86)</sup> 특히 국왕이 문묘 체례를 위해 齋宿하는 경우에는 원거리 행행시 시행하던 宿衛 체제를 진행하였다.<sup>87)</sup>

이와 같이 임난 이후 재건된 문묘 행행이 여타의 도성내 행행과 차별점을

7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03, 광해군 8년, 5월 23일(임진).

80) 『승정원일기』 284책, 숙종 7년, 8월 23일(계묘).

81)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2월 30일(을사).

82) 『승정원일기』 756책, 영조 9년, 2월 5일(정사).

83) 『御營廳舉動曆錄』 권2, 신미(1691) 8월 4일.

84) 『어영청거동등록』 권1, 병인 4월 1일, 「병조절목」.

85) 『승정원일기』 918책, 영조 16년, 8월 1일(기해).

86) 『어영청거동등록』 권2, 계유(1693) 8월 6일, 「병조절목」.

87) 『어영청거동등록』 권19, 계해(1803) 3월 10일.

나타내는 것은 국왕과 성균관의 유생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정치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왕이 문묘 행행을 한 뒤 집춘문을 거치지 않고 도성 내에 행차시에는 대사성이 유생들을 인솔하여 반열을 지어서 祗迎하였다.<sup>88)</sup> 정조는 경모궁에 행행할 때 문묘 앞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가마에서 내려 도보로 앞길을 걸어간 뒤에 재차 가마를 타고 가는 의전을 지속하였다.<sup>89)</sup> 국왕이 문묘에 대한 존숭을 표현했고, 성균관의 유생들은 행행로 연변에서 국왕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모습이 문묘 행행에서 보여진 것이다. 국왕은 문묘 내에서도 보여지는 대상이었다. 1756년(영조 32) 영조는 문묘에 작헌례를 행한 뒤 명륜당에 입어하여 직접 『대학』의 서문을 읽고 강서관 및 유생들에게 『시경』과 『중용』을 읽게 한 뒤 勸學을 명했다. 영조는 29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대학』을 강했다고 하면서 유생들이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육예의 하나인 활쏘기도 권장했다.<sup>90)</sup> 국왕이 문묘 행행에서 강학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왕조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왜란 이후 문묘의 재건과 동시에 진행된 국왕의 행행에서도 알성과 시학의를 유지하면서 왕조의 근간인 유학 공부를 권면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왕조 국가의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는 의례적 장치인 국왕의 행행이 또 다른 장치인 문묘와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는 것은 正學인 유학을 국시로 지향한다는 것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표상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이다. 국왕이 學祭一體, 廟學合一의 문묘에 알성례를 거행하고 유교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

88) 『국역 대학지』 하, 권10, 사실.

89) 『승정원일기』 1502책, 정조 6년, 1월 21일(무오).

90) 『국역 대학지』 권6, 교화; 권7 교화.

를 선발하는 시학은 조선 왕조의 政體를 한 시점에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묘는 왕조 국가의 토대적 시스템으로 그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왕조의 신민으로서 입신양명은 물론 斯文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동지적’ 입장에서 구성되고 싶어 했던 공간이 문묘였다.

임진왜란은 문묘를 전소시켜 그 국가적 기능은 물론 사회적 위상까지 사라지게 했다.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는 의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조 국가의 위기를 노출시키는 현상이었다. 이점은 왕실과 정부보다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문묘를 재건하는 것에 동참하고 재원을 모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외형적 상징이던 문묘의 재건은 양반 지배층의 존재를 기능하는 방향타였다. 국왕이 문묘에 행행하여 공자를 알성하고 그를 추종하는 유생들을 관료로 선발하는 의례적 과정이 곧 양반 지배층의 안위를 국가적으로 보장한다는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국왕과 유생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지적 입장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국왕의 문묘 행행은 왕조의 장기 지속성과 역사적 보편성을 조명하게 하는 사례이다. 행행은 정치적 구상으로서 본다면 군신이 왕조 국가의 체제를 자발적으로 유지[self sustaining system]하려는 의례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적 권위에 입각한 序次의 세계의 이미지를 행차 동원 인원에 내면화[internalization] 시킴과 동시에 외면적으로 왕조 국가의 정형화된 정체를 각인시켜주는 의례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유학을 국시로 하는 왕조 국가에서는 국왕이 정치는 물론 도덕적 지위도 겸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 국왕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던 곳이 문묘였다. 다만 왕조의 시기를 구분해서 본다면 문묘 행행이 구축되던 시기부터 정착되는 시기까지는 국왕의 재위 기간 행행 수치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영조와 정조대에 이르면 큰 변화를 보이는 추이가 없고 오히려 세도정권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세도정권기라고 하여 문묘 행행이 특별히 감소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다만 행행의 추이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문묘 행행의 시기가 춘추대제에

집중되던 것을 제외하면 국왕의 행차 시기가 일정하게 지정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왕의 행행 목적지는 그 자체가 정치적 장소성을 지닌다. 문묘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직과 종묘, 능원묘 등의 행행 대상은 의례를 거행하는 일자에 국왕의 참여가 어려우면 관료가 섭행을 하였다. 종묘와 능원묘가 왕실의 성쇠와 함께하던 운명공동체였다면, 문묘는 왕실보다는 관료, 양반 지배층의 위상과 직접 연결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국왕의 입장에서 문묘의 행행이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하여 정통성 구축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嗣王에게는 자신의 종통인 종묘와 선대왕의 능침에 행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물론 문묘에 국왕들이 알성을 하고 왕세자가 입학하여 유학에 힘쓰는 모습은 왕조의 존재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왕의 문묘 행행이 후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유교적 통치 구조가 안정 체제로 안착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미 왕조의 일상사에까지 유교적 풍속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嗣王의 정치적 입장에 연관된 행행이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영조, 정조, 순조가 私親의 능원묘에 수백번 행행하던 현상이 잘 대변해 준다.

현재 성균관의 명륜당에 걸린 현판 중에 ‘正心誠意’는 고종, ‘讀書志在聖賢’은 순종이 왕세자 시절에 내린 어제이다. 비천당은 국왕이 친림하여 거행하던 과거 시험장으로 일제 강점기에도 유지되었으며, 한국전쟁시 파괴되었다가 1988년 중건되었다. 근대기에도 문묘의 기능이 존중되고 국왕과의 연결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왕의 문묘 행행이 시대의 변화에도 지속되던 추이를 엿보게 해준다. 본 연구는 국왕이 문묘에서 거행하던 알성과 시학의에 대한 의례적 절차 및 행행시 시위 체제 등에 대한 연구를 소략하게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 2020.05.17. / 심사일 : 2020.05.18.~2020.05.28. / 심사완료일 : 2020.05.28.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문선』, 『四佳集』, 『白洲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御營廳舉動謄錄』, K2-3344.  
 일본 외교사료관, 『聖堂復興記念儒道大會關係一件』 H62017.
- 『국역 태학지』 성균관, 1994.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김해영, 「조선초기 문묘 향사제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보』 15, 2000.  
 송웅섭, 「조선 성종의 문묘 의례 준행과 국왕으로서의 권위 창출」, 『역사와 담론』 85, 2018.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연구」, 『역사학보』 35·36, 1967.  
 이성무, 『(개정증보)조선의 사회와 사상』, 일조각, 2004.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도성내 행행의 추세와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3, 국립진주박물관, 2018.  
 David I. Kertzer, 『Age structuri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1989.

〈Abstract〉

## Trends and personality of the King's parade of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Wang-moo\*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was the place that had the monumental status of the Joseon Dynasty. I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King raised and respected the position of the shrine of mausoleum by visiting the Royal Academy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In a country where Confucianism is the national motto, such as the Joseon Dynasty, the King was in a position that also served as a moral position depending on his political status. The source of the moral status was Confucianism, and the space revered after inheriting it was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From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royal pilgrimage to the ceremonies centered on the Confucianism and the center of the shrine as the center of the monument.

After Imjin invade completely destroyed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not only its national function but also its social aspect. The absence of a ceremony for the King to visit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was a phenomenon that exposed the crisis of the dynasty. This is also confirmed by the fact that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 gathered financial resources together with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onggi University

the Confucius's voluntary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which is an external symbol of Confucianism, the ideological rule of the dynasty, was the rudd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men's group ruler.

In conclusion, the fact that the King goes to the National Confucian Shrine is an example of light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historical universality of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e reign of the royal King is to embody the ritual that the vassal retains the system of the dynasty. This is because it serves as a ritual that externally engraves the stylized political system of the dynasty, while at the same time internalizing the image of the world, which is based on Confucian authority, into the mobilization personnel of the line.

**Keywords** : Joseon Dynasty, National Confucian Shrine, Confucian authority, King's parade